

# 고려대장경의 선관경전(禪觀經典) 고찰과 적용 - 중국 초기에 한역된 선관경전을 중심으로 -

이진영\*

- I. 들어가는 말
- II. 선관경전(禪觀經典)의 이해
- III.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된 선관경전의 분류와 특징
- IV. 경전에 근거한 선명상 수행의 적용 방안
  - 선명상 용례사전
- V. 나가는 말

## ■ 한글요약

본 논문은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된 경전 가운데 중국 초기에 한역되어 습선자(習禪者)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선관경전에 대해 분류하고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경전에 근거한 선명상 수행의 적용 방안 에 대해 모색하였다.

선(禪) 수행방법과 그 효용 등에 대해서 설한 경전을 선관경전(禪觀經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선경류(禪經類), 관경류(觀經類), 삼매경류(三昧經類)가 포함된다.

선경(禪經)은 중국에서 전개되는 선법(禪法)의 창립에 밑거름이 되었고, 중국 선종(禪宗)의 선수행법에도 영향을 주었는데, 수행 방법

\* 동국역경원, smilejy7@hanmail.net

으로 안반문(安般門), 부정문(不淨門), 자심문(慈心門), 관연문(觀緣門), 염불문(念佛門)의 오문(五門)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선경의 경전마다 이 오문이 모두 빠짐없이 설명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관경(觀經)은 주로 대상을 관하는 법과 그 공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관경의 특징으로는 첫째, 불보살이 관상(觀想)의 대상이고, 둘째 하나하나의 관법이 단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설명되고 있으며, 셋째 주로 대승경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삼매경(三昧經)은 붓다나 보살이 어떤 삼매에 들어 설하거나 삼매의 공능(功能)에 대해 설한 것으로 삼매를 통해 제법의 평등과 공(空)의 이치를 깨닫고 깨달음을 성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는 삼매 수행의 방법과 형식이 구체적이지는 않음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선관경전에 근거한 선 수행 내용을 중심으로, 그 현대적 적용 가능성으로 선명상 용례사전을 제시하였다. 선명상 용례사전은 선명상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용례를 제공함으로써 선명상의 기초를 구축하고, 선명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 선경(禪經), 관경(觀經), 삼매경(三昧經), 선명상 사전

## I. 들어가는 말

최근에 명상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과 대중적인 인기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명상들이 확산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는 선명상센터도 많이 생기고, 선명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또한 선명상과 관련된 서적들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불교 교리나 경전에 근거가 없는 수행법들도 있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에 바탕한 경우도 있다.

불교명상의 사상과 실천 방법은 불교적인 세계관과 인간관에 바탕한다. 불교의 세계관과 인간관에 그대로 반영되어 제시된 것이 바로 불교 수행 이론이며 실천 방법론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교명상의 문제에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한계를 넘어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평인지를 확인하려면 경전을 통하는 수밖에 없다. 불교명상은 경전에 근거하는 실천이론과 실천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다시 경전을 통해 확인하고 증명되어야 한다.<sup>1)</sup> 따라서 불교명상 혹은 선명상의 수행 방법은 불교 교리나 경전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선명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수행법들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다. 대개의 경우 그것은 가장 순수한 원시적인 명상에 종교와 윤리의 사상과 관념과 의례가 가미됨으로써 보다 고등화된 모습으로 출현하였는데, 가령 호흡명상으로 수식관(數息觀), 사선(四禪)으로서 지(止), 사념처(四念處)로서 관(觀), 간화선(看話禪), 묵조선(默照禪) 등은 불교의 전통으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선명상의 범주에 포함된다. 당연히 선(禪)과 정(定)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불교의 전통적인 신행행위 및 수행방법 가운데서 사유적인 측면이 정화(精華)되고 계

1) 조준호(2010), 4-5.

발되면서 존속되어 왔다.<sup>2)</sup>

이와 같이 다양한 선명상 수행법 가운데 선법(禪法), 관법(觀法), 삼매법(三昧法)을 중심으로 고려대장경<sup>3)</sup>에 입장(入藏)되어 있는 선관경전(禪觀經典)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선명상으로서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나아가 불교 경전에 근거한 선명상 수행의 적용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 II. 선관경전(禪觀經典)의 이해

대장경(大藏經)은 교학과 좀 더 밀접한 속성을 가졌으므로, 고려대장경에서는 선(禪)보다는 교(敎)의 경전류가 많이 입장(入藏)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대장경에도 선수행과 관련된 경전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선수행 방법은 세존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의해서 수습(修習)되

---

2) 김호귀(2023), 13.

3) 고려시대 대장경은 12세기 초엽 거란의 침입과, 13세기 중엽 몽고의 침입 때 각각 국가적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대장경의 소장 장소를 기준으로 전자를 부인사장(符仁寺藏) 고려대장경, 후자를 강화경판(江華京板) 고려대장경으로 호칭하기도 하는데, 전자는 경판(經板) 전부가 부인사(符仁寺)에서 소장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현화사(玄化寺) 등 다른 사찰에서도 분산하여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호칭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라 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조(雕造)의 회차(回次)에 의해 구분하여 전자는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 후자는 재조대장경(再雕大藏經)이라고도 한다. 또한 후자는 목판의 수효를 의미하는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이라 명칭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후자인 재조대장경을 기준으로 하되, 통상적으로 알려진 ‘고려대장경’으로 칭하고자 한다. 고려시대의 대장경 명칭에 대한 문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박상국(1984); 오용섭(1998); 최연주(2010); 천혜봉(1980).]

어저 왔으며, “선법(禪法)은 도(道)로 향하는 최초의 관문(關門)이고 열반(泥洹)으로 가는 나루이며 지름길이다”<sup>4)</sup>라고 하여 선(禪)을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중요한 지름길로 보았다.

이와 같이 선(禪) 수행방법과 그 효용 등에 대해서 설한 경전을 선관경전(禪觀經典)이라고 한다. 선관경전(禪觀經典)은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 가운데 특히 정(定)과 혜(慧)의 2학(學)을 수습(修習)하고 그 경지를 추구한 경전으로서 선정(禪定), 지관(止觀), 삼매(三昧) 등의 사상을 내용으로 하며, 선관경전이라 부르는 것은 이른바 선경류(禪經類), 관경류(觀經類), 삼매경류(三昧經類)를 총칭한 말이다.<sup>5)</sup>

선경(禪經)은 협의(狹義)와 광의(廣義)의 선경으로 나뉘지는데, 협의의 선경은 선정습득을 목적으로 습선(習禪)의 방법이나 실천 및 그 단계를 설한 수선(修禪) 전문의 경전을 말하고, 광의의 선경은 반드시 습선과 선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불교의 교의라든가 수도법 등을 설한 경전으로, 선정을 닦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침서 혹은 참고서로서 도움이 되는 것이다.<sup>6)</sup>

초기 달마계의 선종에서 소의경전인 『능가경(楞伽經)』이나, 중국 선종에 큰 영향을 미친 『금강경(金剛經)』을 비롯하여 『유마경(維摩經)』, 『법화경(法華經)』등도 모두 광의의 선경에 포함된다. 또한 4종의 『아함경』 가운데 『잡아함경(雜阿含經)』이 선경(禪經)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毗尼毗婆娑)』 1권에 『잡아함경』을 정의하기를 “여러 가지 선법(禪法)은 『잡아함경』으로 결집되었는데, 좌선하는 이가 닦고 익히는 것이다.”<sup>7)</sup>라고 하여 선수행하는 이

4) 『出三藏記集』 권9 (T55, 65a), “禪法者 向道之初門 泥洹之津徑也.”

5) 최현각(2010), 253

6) 정성본(1994), 131-132.

7) 『薩婆多毗尼毗婆娑』 권1 (T23, 503c), “說種種隨禪法 是雜阿含 是坐禪人

들이 배워야 할 경전으로 제시되었다.

본고에서는 중국 초기 습선자(習禪者)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협의의 선관경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초기 선경류 문헌은 5세기경 중국 승려들에 의해 선요(禪要), 혹은 선전(禪典) 등으로 명명되었는데,<sup>8)</sup>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서는 “선전(禪典)은 긴요하고 미묘해서 이를 상대할 때는 반드시 근본 종지[宗]가 있어야 한다. 만약 근원을 잃으면 지엽적인 것을 찾게 되어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sup>9)</sup>라고 하였다.

관경(觀經)은 불보살에 대한 관상(觀想)에 대한 내용으로, 경전의 명칭에 ‘관(觀)’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 관경은 주로 대상을 관하는 법과 그 공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되고 있다.

삼매경(三昧經)은 대승공관(大乘空觀)을 바탕으로 하여 갖가지 삼매의 경지를 설명한 것으로,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모으고 산란치 않도록 하는 수행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Ⅲ.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된 선관경전의 분류와 특징

앞 장의 기준에 따라 고려대장경에 입장(入藏)되어 있는, 중국 초기에 한역된 선관경전(禪觀經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

所習.”

8) 승예(僧叡)는 선요(禪要)라 하고, 혜관(慧觀)은 선전(禪典)이라고 이름하였다. [『出三藏記集』 권9, T55, 65a-66c.]

9) 『出三藏記集』 권9 (T55, 66b), “禪典要密 宜對之有宗 若漏失根原則支尋不全.”

10) 분류는 최현각(2010), 255-257을 참고하였고, 분류 항목은 수정 보충하였다.

## 1. 선경(禪經)

<표1> 중국 초기에 한역된 선경(禪經)

	경명	권수	고려 대장경 번호	한역자
1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	2권	K1003	동진(東晉) 불타발타라(佛駄跋陀羅)
2	도지경(道地經)	1권	K986	승가라찰(僧伽羅刹) 저,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역
3	법관경(法觀經)	1권	K1008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4	보살가색욕법경(菩薩訶色欲法經)	1권	K996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5	불설내신관장구경(佛說內身觀章句經)	1권	K1011	실역(失譯)
6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	2권	K806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7	불설선행삼십칠품경(佛說禪行三十七品經)	1권	K887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8	사유략요법(思惟略要法)	1권	K1010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9	선법요해(禪法要解)	2권	K1004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10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	3권	K798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11	선요경(禪要經)	1권	K1012	실역(失譯)
12	선행법상경(禪行法想經)	1권	K814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13	소도지경(小道地經)	1권	K1028	후한(後漢) 지요(支曜)
14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7권	K984	西晉(서진) 축법호(竺法護)
15	신관경(身觀經)	1권	K874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16	오문선경요용법(五門禪經要用法)	1권	K1006	불타밀다(佛陀蜜多) 찬, 유송(劉宋) 담마밀다(曇摩蜜多) 역
17	음지입경(陰持入經)	2권	K807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18	치선병비요법(治禪病秘要法)	2권	K744	유송(劉宋) 저거경성(沮渠京聲)

중국 초기에 전래된 선수행법은 주로 선관경전을 통하여 소개되었는데, 선관경전 이전에 선수행법은 일찍이 한역된 경전 가운데 『중아함경(中阿含經)』 등 아함부 경전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는 부정관(不淨觀)과 수식관(數息觀) 중심으로 한 수행법이 설명되고 있다.

그리고 아비담서에서도 여러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아비담심론(阿毘曇心論)』, 『아비담팔견도론(阿毘曇八健度論)』, 『사리불비담(舍利弗毘曇)』, 『승가나찰집경(僧伽羅刹集經)』 등의 경전에서 소개되고 있다. 아비담서에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수행법은 사념처(四念處)이며, 이 가운데 신념처(身念處)에 해당하는 내용에 부정관(不淨觀), 백골관(白骨觀) 등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아함과 아비담의 한역 이후의 수행법은 주로 선관경전을 통해서 전해졌고, 선관경전은 보리달마로부터 비롯되는 중국 선종이 성립하기 이전, 역경승(譯經僧)들에 의해 전래되었다. 『양고승전(梁高僧傳)』에 의하면 “불교가 동쪽으로 전래되면서 선법(禪法)도 역시 전수되었다. 먼저 안세고(安世高)와 축법호(竺法護)가 선경(禪經)을 번역하였다”<sup>11)</sup>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세고(安世高)<sup>12)</sup>, 지루가참(支婁迦讖)<sup>13)</sup>, 축법호(竺法護)<sup>14)</sup>, 구마라집(鳩摩羅什)<sup>15)</sup>, 불타발타라(佛馱跋

11) 『梁高僧傳』제11권 「習禪總論」(T50, 400b), “自遺教東移禪道亦授.”

12) 안세고는 안식국(安息國) 사람으로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 등 주로 초기선을 전하는 선경을 주로 한역하였다.

13) 지루가참은 『반야도행품경(般若道行品經)』,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등을 한역하였다. 안세고가 초기선의 선관경전과 아비달마 경전을 한역한 반면에 지루가참은 주로 대승의 선관 내용을 담고 있는 경전을 한역하였다.

14) 축법호는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법관경(法觀經)』, 『신관경(身觀經)』 등을 한역하였고, 구마라집 이전에 가장 많은 경전을 번역하였다.

15) 격의불교 시대를 연 구마라집(鳩摩羅什)은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 『선법요해(禪法要解)』, 『사유략요법(思惟略要法)』 등 여러 선경류를 한역하였다.



陀羅) 등이 선경(禪經)을 번역했으며, 이는 약 2세기 후반에서 5세기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구마라집이 한역한 『선비요법경』에서는 서른 가지 관법(觀法)과 선(禪)을 수행하는 자의 마음가짐에 대해 설하고 있고, 『선법요해』는 선(禪)을 닦는 요체를 설한 것으로, 부정관(不淨觀)을 닦아서 오개(五蓋)를 없애는 수행법 등에 대해서 설하고 있다.

또한 『사유락요법』은 선관(禪觀)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열 가지 관법(觀法)을 간략하게 설하고 있으며, 후반부에는 대승선법으로 법신관법(法身觀法), 시방제불관법(十方諸佛觀法), 관무량수불법(觀無量壽佛法), 제법실상관법(諸法實相觀法), 법화삼매관법(法華三昧觀法) 등을 설하고 있다. 이후 불타발타라(佛馱跋陀羅)는 여산(廬山)에서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을 한역하였는데, 달마다라가 모은 선법(禪法)에 대한 내용이다.

이러한 선경은 초기 중국불교의 선수행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안세고가 한역한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은 중국 선종이 흥기되기 이전에 초기 선수행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 경은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대안반경(大安般經)』, 『안반경(安般經)』, 『수의경(守意經)』이라고도 하는데, 의식을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법에 대하여 설하고 있다.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에서는 마음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수식(數息), 상수(相隨), 지(止), 관(觀), 환(還), 정(淨)의 육사(六事)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 육사의 수행을 통해 열반에 이르는 과정을 설하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수식(數息)이란 들숨과 날숨에 의식을 집중하여 수를

헤아리며 몸과 마음의 상태를 보다 정밀하게 감지하는 것이다. 수식은 산란한 마음을 안정시키고, 이 수식을 바탕으로 육사(六事)의 나머지 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반수의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수행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 상수(相隨)는 호흡과 마음이 서로 따르면서 마음이 오직 호흡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더 이상 수를 헤아리지 않아도 마음과 호흡이 일치되는 단계이다. 세 번째 지(止)는 마음을 집중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인데, 호흡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코끝에 집중하여 산란한 마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止)의 단계에서는 오락(五樂)과 육입(六入)에 대한 집착이 제어되어 선정(禪定)으로 들어가게 된다. 네 번째 관(觀)은 들숨과 날숨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을 통해 오음(五陰)이 변화하는 인연을 관찰하여 그 실상(實相)이 무아(無我)임을 아는 것이다. 다섯 번째 환(還)은 관(觀)을 통해 오음(五陰)이 무상(無常)한 것임을 알고서 생각을 전환하여 몸의 칠악(七惡)을 버리고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섯 번째 정(淨)은 마음의 삼악(三惡)을 버려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이 육사(六事)는 『불설대안반수의경』의 핵심 내용으로 부파불교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나아가 대승선법(大乘禪法)에도 기초가 되고 있으며, 중국에 와서는 천태 지의(天台智顓)에 의하여 대승의 수행체계로 나타나고 있다.<sup>16)</sup>

16) 육사(六事)는 천태지의(天台智顓)에 의해서 『육묘법문(六妙法門)』에서 대승의 수행체계로 나타나고 있다. 『육묘법문』에서는 『안반수의경』의 육사 구조를 수용하고 있으나 육묘문(六妙門) 수행에 따른 증득 모습에 육사행법(六事行法)의 증득 모습을 포섭하고, 더 나아가 육묘문이라는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해서도 각각의 근거에 따라 성문불, 연각불, 대보리과를 증득하는 모두 다른 이익을 얻음을 보여준다.[정문용(2009), 177-182]

『불설대안반수의경』이외의 다른 선경 역시 중국에서 전개되는 선법(禪法)의 창립에 밑거름이 되었고, 중국 선종(禪宗)의 선수행법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이러한 선경들은 대부분 초기선의 경이고,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 『소도지경(小道地經)』, 『사유략요법(思惟略要法)』 등은 초기선과 대승선(大乘禪)<sup>17)</sup>이 혼재된 경으로. 초기선법을 설명한 뒤에 대승선법을 첨가하였다. 특히 『수행도지경』은 이러한 특색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은 총 30품으로, 앞의 27품은 모두 초기선에 관한 것이고, 뒤의 「제자삼품수행품」, 「연각품」, 「보살품」의 3품은 대승선에 관한 내용이다. 보살선(菩薩禪)을 설하는 뒤의 3품에서 대승사상을 설하고, 『법화경(法華經)』과 같은 내용으로 삼승법(三乘法)을 설하며 상좌부와 대승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sup>18)</sup>

한편 이러한 선경류에서는 오문(五門)의 수행법이 기술되고 있는데, 『오문선경요용법(五門禪經要用法)』에서는 오문(五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좌선(坐禪)의 요점이 되는 법에 오문(五門)이 있다. 첫째는 안반문(安般門)이고, 둘째는 부정문(不淨門)이며, 셋째는 자심문(慈心門)이고, 넷째는 관연문(觀緣門)이며, 다섯째는 염불문(念佛門)이다. 이 가운데 안반문, 부정문, 관연문의 세 가지 문에는 안팎의 경계가 있고, 염불문

17) 초기선은 오정심관(五停心觀: 五門禪)을 중심으로 수행한 후 사념처(四念處), 사제(四諦),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등을 닦는 수행을 말한다. 대승선은 초기선의 오정심관(五停心觀) 가운데 관법(觀法)을 선택하여 수행하되, 이타(利他)의 보살행(菩薩行)을 행하고, 일체개공(一切皆空)의 도리와 제법실상(諸法實相)을 관찰하여 반야(般若)의 지혜를 깨닫는 것을 말한다.[정성본(1994), 137]

18) 동국역경위원회(1990), 24.

과 자심문의 두 가지는 바깥 경계를 반연한다. 이 오문은 중생의 병통에 따라 가르치니, 즉 어지러운 마음이 많은 이에게는 안반문으로 가르치고, 탐애(貪愛)가 많은 이에게는 부정문으로 가르치며, 분노가 많은 이에게는 자심문으로 가르치고, 자기의 집착이 많은 이에게는 인연문으로 가르치며, 마음이 가라앉은 이에게는 염불문으로 가르친다.<sup>19)</sup>

이 경에서는 이와 같이 오문(五門)을 제시하고 있지만, 안반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관연문도 사대관(四大觀)으로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사유략요법(思惟略要法)』에서는 오문(五門)의 다섯 가지 내용이 설명되어 있지만, 오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이 오문은 후대의 중국불교에 이르면 수행자의 자질과 성향에 따라 수행법을 달리하는 오정심관(五停心觀)<sup>20)</sup>의 수행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정심관은 수식관(數息觀), 부정관(不淨觀), 자비관(慈悲觀), 인연관(因緣觀), 계분별관(界分別觀)으로 다섯 가지 번뇌의 장애를 가라앉히는 수행법이며, 오문과 오정심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염불관(念佛觀)과 계차별관(界差別觀)이다.<sup>21)</sup>

19) 『五門禪經要用法』(T15, 325c), “坐禪之法要有五門 一者安般 二不淨 三慈心 四觀緣 五念佛 安般不淨二門 觀緣此三門有內外境界 念佛慈心緣外境界 所以五門者 隨衆生病 若亂心多者 教以安般 若貪愛多者 教以不淨 若瞋恚多者 教以慈心 若著我多者 教以因緣 若心沒者 教以念佛.”

20) 오정심관(五停心觀)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된 것은 지의(智顗)의 문헌(『仁王護國般若經疏』제2권, 『妙法蓮華經玄義』제4권, 『觀音義疏』제2권)에서 보인다.

21) 오정심관은 산란함을 다스리기 위해 수식관(數息觀)을 닦고, 탐욕(貪慾)을 다스리기 위해 부정관(不淨觀)을 닦고, 성냄을 다스리기 위해 자심관(慈心觀)을 닦고, 어리석음을 다스리기 위해 인연관(因緣觀)을 닦고, 아견(我見)을 다스리기 위해 계차별관(界差別觀)을 닦는 수행법이다.

선경류에서는 계차별관보다는 염불관이 많이 보이고 있는데, 계차별관의 용어가 보이는 선경은 오직 『달마다라선경(達摩多羅禪經)』이다. 이 경에서만 계방편관(界方便觀)이 아만에 대치하는 약으로서 작용한다는 내용이 있을 뿐이다.

염불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져 있는 경은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이다.<sup>22)</sup> 선경에서의 염불관은 입으로 붓다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붓다의 상호를 관상하는 방법으로 관상법의 일종이다. 이 염불관의 방법은 중국에서 쉽게 받아들여졌고, 복잡한 수행법이 아닌 단순하면서도 집중력이 높았던 붓다의 상호를 관상하는 법은 대중적으로 확산되었다.<sup>23)</sup> 그러나 대체적으로 선경류에는 염불관보다는 부정관과 수식관의 내용이 많이 보이고, 그 내용은 아비담서의 내용과 비슷하다.<sup>24)</sup>

그런데 선경류에서는 이와 같이 주로 오문이 설명되고 있지만, 다섯 가지를 모두 빠짐없이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사유략요법』에서는 자심문 대신에 사무량심을 다루고 있고,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과 『오문선경요용법(五門禪經要用法)』에서는 계분별관 대신에 불수념(佛隨念)을 다루고 있으며,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에서는 염불관 대신에 골쇄관(骨鎖觀)을 다루고 있듯이, 경전에 따라 혼재해서 나타나고 있다.

22) 『선비요법경(禪秘要法經)』은 염불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주로 부정관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23) 최은영(2008), 236-237.

24) 수식관과 부정관은 아함부와 아비담 논서에서 대표적인 수행법이다. 아함부에서는 신(身), 수(受), 심(心), 법(法)의 사념처(四念處) 수행을 강조하고, 수식관(數息觀)과 백골관(白骨觀)으로 행해지는 부정관(不淨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유부의 수행체계에서는 수식관, 부정관을 비롯하여, 자비관, 연기관, 계차별관을 설명하고, 사념처를 닦기 전의 수행으로 삼고 있다.

## 2. 관경(觀經)

<표2> 중국 초기에 한역된 관경(觀經)

	경명	권수	고려 대장경 번호	한역자
1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	1권	K64	유송(劉宋) 담마밀다(曇摩蜜多)
2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	1권	K191	유송(劉宋) 강량야사(薑良耶舍)
3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	1권	K194	유송(劉宋) 저거경성(沮渠京聲)
4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	1권	K380	유송(劉宋) 강량야사(薑良耶舍)
5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	10권	K401	동진(東晉) 불타발타라(佛駄跋陀羅)
6	불설관약왕약상이보살경(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	1권	K379	유송(劉宋) 강량야사(薑良耶舍)

불교의 선수행법은 지관(止觀)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止)는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관(觀)은 바른 지혜(智慧)로 대상을 비추어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 지관은 초기불교에서부터 서로 치우침이 없이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부파불교에서도 지관쌍운(止觀雙運)은 계속 계승되었다.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는 이 지관(止觀)을 통해 보살행(菩薩行)의 실천으로 발전하였다.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에서는 “수행하는 사람은 먼저 적정(寂靜: 止)을 얻고 난 다음에 관법(觀法: 觀)에 들기도 하고, 혹은 먼저 관법

을 얻고 난 다음에 적정에 들기도 하는데, 먼저 적정을 익히고 행하여 나중에 관법에 이르더라도 곧 해탈을 얻고, 먼저 관법에 들었다가 적정에 이르더라도 또한 해탈을 얻는다.”<sup>25)</sup>라고 하여 또한 지(止)와 관(觀)의 수행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지(止)와 관(觀)은 양 날개와 같아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관경(觀經)에서는 관(觀)에 초점을 두고 설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 관경(觀經)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은 불상(佛相)을 관(觀)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즉 부처의 경계, 부처의 모습, 부처의 마음, 사무량심(四無量心), 부처의 사위의(四威儀) 등을 관하는 법과 관불(觀佛)의 공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은 사부대중을 위해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을 관하는 법 등을 설하고 있다.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에서는 십육관법(十六觀法)을 설하고 있다. 십육관법을 통해 악인(惡人)도 구제받을 수 있고, 극락정토로 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무량수불(無量壽佛)과 극락정토(極樂淨土)를 관함으로써 무생법인(無生法忍)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에서는 미륵보살의 제자가 되려면 오계(五戒)와 팔계재(八戒齋)와 구족계(具足戒)를 지니고 십선법(十善法)을 닦아 도솔타천(兜率陀天)의 훌륭한 관해야 하고, 도솔타천에 왕생하려면 도솔천을 생각하고 염하되 금계(禁戒)를 지니 십선행(十善行)과 십선도(十善道)를 관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25) 『修行道地經』권5 (T15, 211c), “其修行者 或先得寂而後入觀 或先得觀然後入寂 習行寂寞適至於觀便得解脫 設先入觀若至寂寞亦得解脫.”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은 보현보살을 관하는 법과 그 공덕 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은 각 품에서 불상(佛相)을 관하는 방법을 광범위하게 밝히고 있다. 『불설관약왕약상이보살경(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은 약왕보살(藥王菩薩)과 약상보살(藥上菩薩)을 관하는 법을 설하고 있다. 관법 가운데 위빠사나와 사마타를 닦아서 게으르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관경류의 특징으로는 첫째, 불보살이 관상(觀想)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관불삼매해경(觀佛三昧海經)』은 석가모니불, 『불설관약왕약상이보살경(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은 약왕보살(藥王菩薩)과 약상보살(藥上菩薩), 『관허공장보살경(觀虛空藏菩薩經)』은 허공장보살,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은 보현보살,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佛說觀彌勒菩薩上生兜率天經)』은 미륵보살,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은 아미타불로 관상(觀想)의 대상이 불보살이다.

둘째, 하나하나의 관법이 단계적 혹은 순차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불설관무량수불경(佛說觀無量壽佛經)』에서는 일상관(日想觀), 수상관(水想觀), 지상관(地想觀), 수상관(樹想觀), 팔공덕수상관(八功德水想觀), 총관상관(總觀想觀), 화좌상관(花座想觀), 상상관(像想觀), 진신관(眞身觀), 관세음보살진실색신상관(觀世音菩薩眞實色身想觀), 세지색신상관(勢至色身想觀), 보관(普觀), 잡상관(雜想觀), 상배생상관(上輩生想觀), 중배생상관(中輩生想觀), 하배생상관(下輩生想觀) 등의 십육관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셋째, 관경류는 주로 대승경전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설관약왕약상이보살경(佛說觀藥王藥上二菩薩經)』은 『법화경』의 「약왕보



살본사품(藥王菩薩本事品),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佛說觀普賢菩薩行法經)』은 『법화경』의 「중지용출품(從地涌出品)」과 「보현보살근발품(普賢菩薩勤發品)」 등과 관련되어 있고,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은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과 그 사상적인 내용을 같이 하고 있다. 이로써 관경류는 대승선(大乘禪)에 기반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3. 삼매경(三昧經)<sup>26)</sup>

26) 삼매경에 해당되는 경전이 많아, 각 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기술하지 않고, 각주에서 기술하였다. 삼매경에 해당되는 각 경의 간략한 내용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은 대승불교의 핵심 교리를 연결하여 삼매의 최고경지로 나아가는 선 수행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 경의 주석서로 원효가 쓴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 있다. ②『등목보살소문삼매경(等目菩薩所問三昧經)』은 보현보살(普賢菩薩)의 정의(定意)를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그것을 통해 얻는 공덕을 밝히고 있다. ③『등집중덕삼매경(等集衆德三昧經)』은 등집중덕삼매(等集衆德三昧)에 대한 내용으로, 초발의(初發意)보살로서 위없는 바르고 진실한 도에 이르려고 하는 자는 이 삼매를 닦아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 삼매의 공덕과 이 삼매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행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설하고 있다. ④『무극보삼매경(無極寶三昧經)』은 무극보삼매(無極寶三昧)를 통해서 정각(正覺)을 이루면 무상보(無上寶)를 얻는다고 설한다. ⑤『문수사리보초삼매경(文殊師利普超三昧經)』은 공(空)의 이치를 설하고 있다. 특히 제9『변동품(變動品)』에서는 연수보살이 변동삼매(變動三昧)로 선정에 들어간 내용을 설하고 있다. ⑥『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은 반주삼매(般舟三昧)에 의하여 견불(見佛)하였다는 내용을 설하고 있다. ⑦『보살염불삼매경(菩薩念佛三昧經)』은 염불삼매(念佛三昧)를 얻는 법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하고 있으며, 불보살의 신통력은 염불삼매에서 비롯된 것임을 설하고 있다. 이역본으로 달마 급다가 한역한 『대방등대집경보살염불삼매분(大方等大集經菩薩念佛三昧分)』이 있다. ⑧『불설금강삼매본성청정불괴불멸경(佛說金剛三昧本性淸淨不壞不滅經)』은 십지(十地)에 이르는 보살이 행해야 하는 공덕의 법과 금강삼매(金剛三昧)에 관한 내용이다. ⑨『불설돈진타라소문여래삼매경

(佛說佉眞陀羅所問如來三昧經)』은 보여래삼매(寶如來三昧)에 대한 내용을 설하고 있다. ⑩『불설반주삼매경(佛說般舟三昧經)』은 반주삼매(般舟三昧)를 성취하는 법과 그 공덕에 대하여 설하고 있는데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의 일부 품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⑪『불설법률삼매경(佛說法律三昧經)』은 보살이 경계해야 할 12가지 잘못과 성문(聲聞), 연각(緣覺), 보살(菩薩), 여래(如來), 외도(外道)가 들어가는 선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있다. ⑫『불설법화삼매경(佛說法華三昧經)』은 법화삼매(法華三昧)에 들어가는 법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법화삼매를 통해 여자의 몸으로도 성불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⑬『불설보여래삼매경(佛說寶如來三昧經)』의 이역본으로 축법호가 한역한 『무극보삼매경(無極寶三昧經)』이 있다. 『불설보여래삼매경』이 분량은 약간 많지만, 내용적인 면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⑭『불설보적삼매문수사리보살문법신경(佛說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은 보적삼매(寶積三昧)와 문수보살이 묻은 법신(法身)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보적삼매를 통하여 모든 법의 본체(本際)를 보고, 모든 것이 공(空)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⑮『불설불인삼매경(佛說佛印三昧經)』은 불인삼매(佛印三昧)에 대한 내용이다. ⑯『불설성구광명정의경(佛說成具光明定意經)』은 성구광명(成具光明)이라는 선정(定意) 닦는 방법을 설한 것이다. 그 방법으로 135가지의 일을 청정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⑰『불설수능엄삼매경(佛說首楞嚴三昧經)』은 수능엄삼매(首楞嚴三昧)의 공능(功能)에 대해 설하고, 공사상(空思想)에 근거하여 제법(諸法)의 평등과 무애(無碍)의 보살행 등을 설하고 있다. 이 경은 『유마경』, 『십지경』, 『법화경』 등 중요한 대승 경전과 관련이 많아 경전의 성립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⑱『불설여래독증자서삼매경(佛說如來獨證自誓三昧經)』은 안세고(安世高)가 한역한 『불설자서삼매경』과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⑲『불설여환삼마지무량인법문경(佛說如幻三摩地無量印法門經)』의 이역본으로 담무갈(曇無竭)이 한역한 『관세음보살수기경(觀世音菩薩授記經)』이 있다. ⑳『불설여환삼매경(佛說如幻三昧經)』은 이구광엄정삼매(離垢光嚴淨三昧)와 보광이구엄정삼매(普光離垢嚴淨三昧)에 대해 설명하고, 세상의 모든 것이 공(空)임을 깨달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㉑『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K181)은 송(宋)·원(元)·명(明)의 세 대장경 본이 있는데 각각 11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고려대 장경본만 10권으로 되어 있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불타가 월광동자보살에게 삼매를 설명하고, 그 공덕에 대해 상세하게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불설월등삼매경(佛說月燈三昧經)』(K182)은 송·원·명 세 본의 대장경에는

<표3> 중국 초기에 한역된 삼매경(三昧經)

	경명	권수	고려 대장경 번호	한역자
1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	1권	K521	실역(失譯)
2	등목보살소문삼매경(等目菩薩所問三昧經)	3권	K100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3	등집중덕삼매경(等集衆德三昧經)	3권	K140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4	무극보삼매경(無極寶三昧經)	2권	K170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5	문수사리보초삼매경(文殊師利普超三昧經)	3권	K175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6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3권	K67	후한(後漢) 지루가참(支婁迦讖)
7	보살염불삼매경(菩薩念佛三昧經)	5권	K60	유송 공덕직(功德直)
8	불설금강삼매본성청정불괴불멸경(佛說金剛三昧本性清淨不壞不滅經)	1권	K501	실역(失譯)
9	불설진돈타라소문여래삼매경(佛說眞陀羅所問如來三昧經)	3권	K129	후한(後漢) 지루가참(支婁迦讖)
10	불설반주삼매경(佛說般舟三昧經)	1권	K68	후한(後漢) 지루가참(支婁迦讖)
11	불설법률삼매경(佛說法律三昧經)	1권	K547	오(吳) 지겸(支謙)
12	불설법화삼매경(佛說法華三昧經)	1권	K113	유송(劉宋) 지엄(智嚴)
13	불설보여래삼매경(佛說寶如來三昧經)	2권	K171	동진(東晉) 기다밀(祇多蜜)
14	불설보적삼매문수사리보살문법신경(佛說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	1권	K240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15	불설불인삼매경(佛說佛印三昧經)	1권	K471	후한(後漢) 안세고(安世高)
16	불설성구광명정의경(佛說成具光明定意經)	1권	K363	후한(後漢) 지요(支曜)
17	불설수능엄삼매경(佛說首楞嚴三昧經)	2권	K378	후진(後漢) 구마라집

	昧經)			
18	불설여래독증자서삼매경(佛說如來獨證自誓三昧經)	1권	K274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19	불설여환삼마지무량인법문경(佛說如幻三摩地無量印法門經)	3권	K1450	북송(北宋) 시호(施護)
20	불설여환삼매경(佛說如幻三昧經)	2권	K44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21	월등삼매경(月燈三昧經)	10권	K181	고제(高齊)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불설월등삼매경(佛說月燈三昧經)	1권	K182	유송(劉宋) 선공(先公)
	불설월등삼매경(佛說月燈三昧經)	1권	K183	유송(劉宋) 선공(先公)
22	불설자서삼매경(佛說自誓三昧經)	1권	K273	후한 안세고
23	불설초일명삼매경(佛說超日明三昧經)	2권	K386	서진(西晉) 섭승원(聶承遠)
24	불설혜인삼매경(佛說慧印三昧經)	1권	K172	오(吳) 지겸(支謙)
25	불설홍도광현삼매경(佛說弘道廣顯三昧經)	4권	K407	서진(西晉) 축법호(竺法護)
26	사동자삼매경(四童子三昧經)	3권	K109	수(隋) 사나굴다(闍那崛多)
27	역장엄삼매경(力莊嚴三昧經)	3권	K399	수(隋) 나련제야사(那連提耶舍)
28	적조신변삼마지경(寂照神變三摩地經)	1권	K482	당(唐) 현장(玄奘)
29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	2권	K991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30	집일체복덕삼매경(集一切福德三昧經)	3권	K141	요진(姚秦) 구마라집(鳩摩羅什)

없고, 고려대장경에만 있다. 나련제야사가 한역한 『월등삼매경』의 제5권 후반부 내용과 비슷하다. 『불설월등삼매경(佛說月燈三昧經)』(K183)은 『월등삼매경』의 제6권 전반부 내용과 비슷하다. ② 『불설자서삼매경(佛說自誓三昧經)』은 붓다 스스로 서원을 세우고 선정(禪定)을 통해 깨달음을 이룬 내용을 설하고 있다. ③ 『불설초일명삼매경(佛說超日明三昧經)』는 초일명삼매(超日明三昧)를 얻기 위한 방법을 설한 뒤 초일명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법보(法寶)삼매, 선주(善住)삼매, 무동(無動)삼매

삼매(三昧)란 삼학(三學)의 하나인 정(定)에 해당한다. 그런데 계(戒)·정(定)·혜(慧) 삼학이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계(戒) 중에 정(定)과 혜(慧)가 포함되며, 정(定) 중에 계(戒)와 혜(慧)가 있어야 하며, 혜(慧) 중에 계(戒)와 정(定)이 포함되어야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이 가능하게 된다.

대승불교에 이르면 삼매의 종류가 무수히 많이 나타나고, 대승경전에 수많은 삼매가 등장하게 된다.<sup>27)</sup> 근본불교에서 부파불교에 이르기까지 선정의 수행법이 중시되었고, 대승불교에 이르러서도 역

등 여러 가지 삼매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②4 『불설혜인삼매경(佛說慧印三昧經)』은 먼저 부처를 보려면 혜인삼매(慧印三昧)에 들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려면 공(空)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한다. ②5 『불설홍도광현삼매경(佛說弘道廣顯三昧經)』은 공(空)의 이치와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대승의 가르침을 설하고 있다. ②6 『사동자삼매경(四童子三昧經)』의 이역본으로 『불설방등반니원경(佛說方等般泥洹經)』이 있는데, 『불설방등반니원경』의 제1품에서 제6품까지의 내용만 같다. ②7 『역장엄삼매경(力莊嚴三昧經)』은 역장엄삼매(力莊嚴三昧)와 십지(十智)에 대해 설하고 부처의 경계는 중생의 경계와 차별이 없다고 설하고 있다. ②8 『적조신변삼마지경(寂照神變三摩地經)』은 적조신변삼마지(寂照神變三摩地)와 그 공덕에 대해 설하고 있다. ②9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대·소승의 선법(禪法)을 종합적으로 설하고 있다. 상권에서는 부정관, 자심관, 인연관, 수식관, 염불관에 대해 설명하고, 하권에서는 대승보살의 선법(禪法)에 대해 설하고 있다. ③0 『집일체복덕삼매경(集一切福德三昧經)』의 이역본으로 축법호가 한역한 『등집중덕삼매경(等集衆德三昧經)』이 있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27) 대승경전의 출현 연기는 삼매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반야경』은 등지왕삼매, 『법화경』은 무량외처삼매, 『열반경』은 부동삼매, 『화엄경』은 해인삼매 등이 설시(說時)에 등장하는데, 이는 모든 대승경전의 기본사상이자 공통사상인 공의 이해나 득지 방법이 삼매를 떠나서는 성립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삼매의 상태에서만 일체 존재의 올바른 공성이 파악되기 때문에 대승 경론 등은 삼매를 설하지 않고서는 성립되지 않는다.[徐濂烈(2023), 124-126]

시 삼매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대승불교에서의 삼매는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은 뒤에 중생을 교화하는 능력을 증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대승불교에서의 삼매경은 일반적으로 대승공관(大乘空觀)을 기저로 한 개개의 경전이 보살행의 원리가 되는 갖가지 삼매의 경지를 설명한 것이므로<sup>28)</sup> 삼매경은 거의 대승적인 성격에 가깝다.

예를 들면 『불설보적삼매문수사리보살문법신경(佛說寶積三昧文殊師利菩薩問法身經)』에서는 보적삼매를 통하여 모든 법의 본체(本際)를 보고, 모든 것이 공(空)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함을 설명하고 있고,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 「행품(行品)」에서는 삼매 속에 현현한 붓다뿐만 아니라 삼계가 공하다고 설하고 있어 이 경전에서도 공사상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설혜인삼매경(佛說慧印三昧經)』은 혜인삼매를 닦아야 함을 강조하고, 『불설여환삼매경(佛說如幻三昧經)』에서는 이구광엄정삼매(離垢光嚴淨三昧)와 보광이구엄정삼매(普光離垢嚴淨三昧)에 든 경지를 설명하며, 『등집중덕삼매경(等集衆德三昧經)』에서는 등집중덕삼매의 공덕과 이 삼매를 얻으려고 하는 자가 행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설하면서, 결국 이러한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공(空)의 행을 닦아 익혀야 함을 드러내고 있어, 역시 공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삼매경은 붓다나 보살이 어떤 삼매에 들어 설하거나 삼매의 공능(功能)에 대해 설한 것으로 삼매를 통해 제법의 평등과 공(空)의 이치를 깨닫고 깨달음을 성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삼매 수행의 방법과 형식이 구체적이지는 않다.<sup>29)</sup>

28) 최현각(2010), 254.

한편 이러한 선관경전의 분류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매경류인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은 선경류에서 보이는 오문(五門)의 수행법이 중심 주제로 서술되어 있어 선경류라 할 수도 있고, 삼매경류라 할 수도 있다. 또한 관경류인 『불설관불삼매해경(佛說觀佛三昧海經)』은 불상(佛相)을 관하는 법을 밝히고 있지만, 염불삼매에 대한 내용도 있어 관경류와 삼매경류에 모두 속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분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선관경전들은 모두 선정법(禪定法)의 기초이며, 이러한 분류를 통해서 선정수행 방법의 구조와 체계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 IV. 경전에 근거한 선명상 수행의 적용 방안

##### - 선명상 용례사전

명상의 관심이 급증하면서 선명상 입문서가 많이 출간되고 있다. 선명상 입문서의 양적 증가는 국내 출판계에서 선명상 전반에 걸친 관심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명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대중적 인기가 커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주로 심리치료와 관련된 명상의 연구 증가 및 힐링과 웰빙을 위한 명상에 관한 대중적 관심의 증가가 많은 영향을 끼쳤다.<sup>30)</sup> 하지만 이는 심리치료와 섞여서 선명상이라고 하기에는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29) 삼매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삼매의 범위에 대해서는 『십주비바사론(十住毘婆沙論)』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30) 문진건(2019), 252-253.

또 한편으로는 위빠사나 등 선명상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이나 방법을 다룬 에세이가 시중에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러한 책들 역시 주관적인 요소가 많다. 이로 인해 불교 문헌과 전통적 수행에 기초한 이해와 임상적 활용에 기초한 명상에 대한 이해가 서로 어긋나고 명상의 기법에 대한 구성적 요소들도 다양하게 풀이되고 있다.<sup>31)</sup>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선명상에 대한 전문성의 강화가 더욱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선명상 전체를 통합적으로 정리된 전문적인 문헌이나 선명상 사전이 없다. 따라서 선명상의 내용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불교경전에 근거한 실용적인 선명상 사전이 편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선명상이나 선학(禪學)과 관련된 통합적인 내용이 나온 대표적인 사전은 1995년 출간된 『선학사전(禪學辭典)』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선불교와 관련된 용어, 인물, 공안 등 9,100여 항목의 표제어를 선정하여 수록하였고, 그 전거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학사전은 문헌정보 면에서 정확하지 못하고, 선명상 수행보다는 선어(禪語)나 선학(禪學) 용어의 개념 설명에만 그치고 있다.

오늘날의 향상된 사전들은 그에 관한 비교적 세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의 기대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사전은 정보와 정보의 응용법을 가르쳐주는 도구이므로, 모든 사람은 그 도구를 최대한 이용하여 정보화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sup>32)</sup> 따라서 선명상 사전에 제공되는 정보는 통합사전의 성격을 띠어야 될 것이다. 즉 용어사전에 용례를 더한 것으로, 순수 언어 사전적인 기술 태도를 지양하고, 용례사전적인 편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31) 인경 스님(2012), 88-94.

32) 이상섭(1990), 100.



예를 들어 고려대장경의 『법원주립』은 용례사전식으로 이루어진 문헌이라 할 수 있는데, 법원주립의 형식은 100편 668부로 분류하여, 각 편은 편목의 대의를 서술한 술의부(述意部), 명칭에 대해서 자의적(字義的)으로 해설한 회명부(會名部), 모든 경론에서 해당 부분을 인용하여 해설한 인용부(引證部),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사례를 증명할 수 있는 효과, 영험담을 모은 감응연(感應緣)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3)</sup>

선명상 사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법원주립』의 체제를 차용한다면 좀 더 실질적인 활용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먼저 주제 혹은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서술하며, 경전에서 초록한 용례 또는 실천적 방법을 정리하는 체제이다.

수식관(數息觀)이라는 항목을 예로 들어보면, 먼저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를 해설한 뒤에, 여러 경전의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초록하는 것이다. 선관경전에서 보이는 수식관에 관한 용례는 다음과 같다.<sup>34)</sup>

무엇을 수(數)라고 하는가? 한마음으로 들숨을 생각하고, 들숨이 끝나게 되면 하나를 헤아린다. 날숨이 끝남에 이르면 둘을 헤아린다. 만일 끝나지 않았는데 헤아린다면,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만일 둘로부터 아홉에 이르기까지 헤아렸으나 틀렸으면 다시 하나로부터 헤아려 시작한다.<sup>35)</sup>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권상)

33) 손진(2022), 80.

34) 본고에서는 선관경전을 기준범위로 하여 한정적으로 살펴보았지만, 그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선관경전이 아닌 다른 경전이나 논서에서도 그 의미나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수행 방법에 대해서도 매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35) 『坐禪三昧經』권상(T15, 273a), “何爲數 一心念入息 入息至竟數一 出息至竟數二 若未竟而數爲非數 若數二至九而誤 更從一數起.”

지금 수식(數息)의 방법을 해설하겠다. 어떠한 것이 수식이고, 어떠한 것이 안(安)이며 어떠한 것이 반(般)인가? 날숨을 ‘안’이라 하고, 들숨을 ‘반’이라 한다. 날숨과 들숨에 따라서 다른 생각을 없애는 것을 ‘숨의 출입을 헤아리는 것[數息出入]’이라고 한다.<sup>36)</sup>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5권)

어떤 것을 수식(數息)이라고 하는가? 만일 수행하는 사람이 한가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앉아 뜻을 집중하여 산란하지 않게 한 다음, 나고 드는 숨을 헤아려 열 번까지 이르게 한다. 하나에서부터 둘까지 이르다가 만일 마음이 산란해지면 다시 하나, 둘로부터 헤아려 아홉까지 이르게 해야 한다. 설령 마음이 산란해지면 마땅히 숨을 다시 헤아려야 하니, 이것을 수식이라고 한다. 수행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밤낮으로 한 달, 1년에 이르기까지 숨 헤아리기를 익혀 열 번째 숨까지 이를 때까지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해야 한다.<sup>37)</sup>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5권)

하나로부터 열에 이르는 동안 안정과 흠어짐을 분별하고 즐거움을 따라서 의식하여, 이미 마음의 안정을 얻었으면 곧 지혜가 뒤따른다.<sup>38)</sup>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권상)

이 같은 경전에서의 적절한 용례는 표제어의 근거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뜻을 이해시키는 데에 도움이 된다. 만약 표제어의 한자 뜻 그대로를 푼 뜻풀이만 있고, 용례가 없다면 이용자들에게 실질적

36) 『修行道地經』권5(T15, 215c), “今當解說數息之法。何謂數息 何謂為安 何謂為般 出息為安 入息為般 隨息出入而無他念 是謂數息出入。”

37) 『修行道地經』권5(T15, 216a), “何謂數息 若修行者坐於閑居無人之處 秉志不亂數出入息 而使至十從一至二 設心亂者當復更數一二至九 設心亂者當復更數 是謂數息 行者如是晝夜習數息 一月一年至得十息心不中亂。”

38) 『佛說大安般守意經』권상(T15, 165c), “從一至十 分別定亂 識對行藥 已得定意.”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 선명상 사전은 정보의 정확성과 객관성이 있어야 되지만, 용어와 어휘적인 풀이에만 그친다면 그 사전의 활용도 내지 효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전의 용례를 최대한 반영해서 체재와 구성을 갖춘 선명상 용례사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이용자가 근거를 찾아서 여러 경전을 찾아보아야 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고,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용례를 들 때 꼭 수반되어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경전 번역의 문제인데, 그동안 동국역경원에서 펴낸 한글대장의 번역 문체는 대부분 직역(直譯)으로 이루어져 왔다. 직역 위주의 번역은 내용상의 오류를 적게 범하면서 동시에 본뜻을 그다지 손상하지 않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한문에 기초가 없는 일반 독자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말로서의 자연스러움을 상실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의역(意譯)은 원문의 뜻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잘못하면 본뜻이 손상되거나 본래 내용과 어긋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다방면의 고찰을 통해서 양자(兩者)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번역이 필요하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오역(誤譯)을 줄이고, 반드시 뜻과 문맥이 통하는 번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문맥이 맞지 않아서, 아무리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번역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번역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 선명상 수행방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붓다의 가르침도 언어로 전하여지고 있는 이상, 그 가르침은 그것을 표현하는 언어의 저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 그 자체에 들어 있는 것이다. 언어를 빌려 전달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39) 이진영(2012), 40.

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sup>40)</sup> 가장 좋은 번역은, 경전에서의 뜻을 잘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이용자가 번역된 경전의 용례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 V. 나가는 말

오늘날 명상은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친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는 신체 및 심리적인 건강과 평온을 얻기 위해 명상을 하고 있다. 종교적인 수행보다는 개인의 심신 치유, 혹은 여가생활 차원에서 대부분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입장에서 명상수행은 심신 안정의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명확하게 알고 항상 깨어있음이며, 나아가 종교적 성취, 즉 깨달음 성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명상은 일반 명상과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제는 점차로 선명상의 정체성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대중적 가치의 현실적 수용도 중요하지만, 선명상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정체성을 갖기 위한 근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한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 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 등 불교 문헌에 기초하지 않으면 선명상 수행체계에 있어서 서로 이해가 어긋날 수 있고, 활용이나 응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확한 선명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초기에 한역된 선관경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현

---

40) 이평래(2004), 9.

대적 적용 가능성으로 선명상 용례사전을 제시하였다. 선명상 용례사전은 중국 초기에 한역된 선관경전뿐만 아니라, 『아함경(阿含經)』, 『능가경(楞伽經)』 등 광의의 선관경전, 나아가 논서, 선어록, 빨리경전, 산스크리트뜨경전, 티베트경전으로 확장하고 단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표제어 선정, 뜻풀이, 경전의 번역, 용례의 추출, 윤문과 교정, 편집 등 여러 면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편찬되어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선명상 용례사전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그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단계의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선명상은 수행이고 실천이기 때문에 문자로 정리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선명상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개념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선명상 용례사전은 선명상 용어에 대한 명확한 의미와 용례를 제공함으로써 선명상의 기초를 구축하고, 선명상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길잡이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원전

『불설대안반수의경(佛說大安般守意經)』T15.

『살바다비니비바사(薩婆多毗尼毗婆娑)』T23.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T15.

『양고승전(梁高僧傳)』T50.

『오문선경요용법(五門禪經要用法)』T15.

『좌선삼매경(坐禪三昧經)』T15.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T55.

### 2. 단행본 및 논문

김준호(2009), 「운문 경전에 나타난 지(止), 관(觀) 개념」, 동아시아불교문화 3,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김호귀(2023), 「불교명상의 성격과 그 특징-명상과 선정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한국명상심리상담』 29,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동국역경위원회(1990), 「『수행도지경(修行道地經)』해제」, 『한글대장경』 57, 동국역경원.

문진건(2019), 「불교명상입문서 간행의 현황과 분석」, 『한국불교사연구』 16, 한국불교사학회.

박상국(1984), 「해인사(海印寺) 대장경판(大藏經版)에 대한 고찰(考察)-그 명칭(名稱)과 판각내용(板刻內容)을 중심으로-」, 『한국학보』 33, 일지사.

- 서린열(2003), 「사종삼매의 성립과정」, 『중앙승가대학논문집(中央僧伽大學論文集)』, 중앙승가대학교.
- 손진(2022), 「법원주립(法苑珠林) 권제6 육도편(六道篇) 귀신부(鬼神部)의 구성과 특징」, 『불교연구』 56, 한국불교연구원.
- 오용섭(1998), 「『팔만대장경(八萬大藏經)』 명칭의 유래」, 『서지학연구』 16, 서지학회.
- 이상섭(1990), 「현대 사전편찬학의 이론과 실제」, 『사전편찬학 연구』 3,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 이진영(2012), 「경전 번역의 제 문제-한글대장경의 역경예규를 중심으로」, 『전자불전』 14,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 이평래(2004), 「불교학술용어표준화 사업의 미래상(未來像)」, 『한국불교학회』 39, 한국불교학회.
- 인경 스님(2012), 『명상심리치료』, 서울: 명상상담연구원.
- 정문용(2009), 「천태의 안반수의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논문.
- 정성분(1994), 『선의 역사와 사상』, 서울: 불교시대사.
- 정준영(2011),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의미와 쓰임에 대한 일고찰」,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 운주사.
- 조준호(2010), 『불교명상』, 서울: 중도.
- 천혜봉(1980), 「고려(高麗) 초조대장경(初雕大藏經)-그 원류(源流), 영향(影響) 및 이설(異說)의 검토(檢討)를 중심으로-」, 『인문과학』 9,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최연주(2010), 「부인사장(符仁寺藏) 『고려대장경(高麗大藏經)』의 호칭과 조성」, 『한국중세사연구』 28, 한국중세사학회.
- 최은영(2008), 「한역(漢譯)된 선경(禪經)류가 초기 중국불교 수행론에 끼친 영향」, 『불교연구』 29, 한국불교연구원.
- 최현각(2010), 『선학의 이해』,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 Abstract

**A Study and Application of the Seon Meditation Sūtra  
(禪觀經典) in Goryeo-Dynasty's  
Tripitaka (高麗大藏經):**

With a Focus on the Seon Meditation Sūtra(禪觀經典), which was  
Translated into Chinese in the Early Days

Lee, Jin-young

This paper focused on the seon meditation sūtra (禪觀經典) contained in Goryeo-Dynasty's Tripitaka (高麗大藏經) and sought ways to apply meditation based on Buddhist scriptures.

The scriptures that describe the method of carrying out the Seon and its utility are called the seon meditation sūtra (禪觀經典).

In this paper, we categorized and organized the seon meditation sūtra, which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seon meditator in early China. The seon sūtra (禪經) was the foundation of the seon developing in China and influenced the Chinese seon sect (禪宗)'s meditation method.

The vipassana sūtra (觀經) refers to the name of the Buddhist scripture as 'vipassana (觀)'. The first feature is that the Buddha and the Bodhisattva meditate. Second, each meditation method is explained step by step or sequentially. Third, it is mainly related to



Mahāyāna sūtra (大乘經典).

Next, samadhi sūtra (三昧經) emphasizes that Buddha or Bodhisattva should join a certain samadhi or realize the reason for emptiness and achieve it. However, the process showed that samadhi's method and format were not specific.

Finall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meditation based on these Buddhist scriptures, the ‘seon meditation usage dictionary’ was presented as its modern applicability.

By providing a clear meaning and use case for seon meditation terms, this ‘seon meditation usage dictionary’ will be a guide in establishing the foundation of seon meditation and practicing meditation.

**Keywords** ● Goryeo-Dynasty's Tripitak a (高麗大藏經), seon sūtra (禪經), vipassana, meditation, Meditation dictionary

■ 논문투고일 : 2024.05.16 ■ 심사완료일 : 2024.06.07 ■ 게재확정일 : 2024.06.07

